

서 평

Dusan Sidjanski, *L'avenir fédéraliste de l'Europe : La Communauté européenne des origines au traité de Maastricht*, Paris :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2, 440 p.

조 홍 식

스위스 제네바 대학 시잔스키 교수의 <유럽의 연방주의적 미래 : 유럽공동체의 기원에서 마스트리히트 조약까지>는 입문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전문성과 학술적 성향이 뚜렷한 역사이다. 유럽지역의 통합에 대해서 학술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학자들에게 이 책의 출간은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유럽통합에 대해서 이루어진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연구가 대부분 법학이나 경제학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해 왔는데 최초로 정치학적인 분석의 틀이 체계적으로 적용된 연구를 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치학 내에서도 근래 출간된 영미학계의 저서들이 대부분 분야별로 전문가의 논문을 묶은 공저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서, <유럽의 연방주의적 미래>는 유일하게 한 유럽전문가의 일관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시잔스키는 이론적 관심에서 유럽통합의 실패를 인용하는 학자들이나, 탈근대의 문제의식에서 유럽지역연구를 활용하는 학자들과는 달리 1950년대부터 이미 유럽통합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40여년의 풍부한 연구경험과 업적을 이 저서에 담았다고 할 수 있다.

시잔스키가 유럽통합을 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그것이 현대적인 의미의 새로운 연방(fédération)을 구축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통합을 각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민족국가의 연합이라고 보는 혼합주의(syncrétisme)의 시각이나, 회원국간에 협력하는 틀의 제도적 기능과 독창성을 강조하는 기능주의(functionnalisme)적 시각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미 유럽공동체나 유럽연합이 연방주의적 색채를 띠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시잔스키는 유럽의 통합이 여러 연방국가 중에서도 특별히 스위스 연방과 비교될 수 있는 많은 요소를 함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유럽은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언어와 관습과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자이크로서 각 구성집단이 상당히 강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시잔스키의 연방주의는 유럽통합을 분석하는 이론적 입장임과 동시에 유럽의 미래에 있어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정치체계의 형태라는 당위성을 포함하고 있다.

저서의 제1부는 유럽통합을 “기원에서 유럽단일조약까지”, 역사적으로 분석한다. 기존의 통합연구가 유럽의 전후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모네(Monnet)와 슈만(Schuman)의 기능주의적 제안에 두고 있는데 반해, 시잔스키는 이러한 경제중심의 기

능주의적 통합과 동시에 정치문화중심의 통합운동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저자는 이 같이 유럽통합의 출발이 경제적 기능주의와 정치문화적 동질성의 인식이라고 하는 두 개의 시점에서 유래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진정한 연방주의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통합과 정치문화적 통합이 균형을 이루면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저서의 독창성이 돋보이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이론적 입장을 바탕으로, 통합이 성공하고 진전된 경제부문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통합이 실패한 정치부문의 여러 시도를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다. 유럽 석탄철강공동체가 제안되기도 전인 1949년에 제안된 대통령 중심제 유럽연합의 계획에서부터 시작하여, 1953-54년의 유럽방어공동체 계획, 1960-62년의 드골식 푸셰(Fouchet) 계획, 1975년의 틴드만드(Tindemans) 보고서, 1981-87년의 스피넬리(Spinelli)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다. 1987년의 유럽단일조약은 경제적 통합의 강화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공동정책 범위와 권한의 확대, 유럽의회의 권한 강화, 정치적 협력의 제도화 등을 통해 정치문화적 통합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제2부는 “통합과 정치적 혁신”의 구조와 과정을 설명하는 데 할애되었다. 시잔스키는 반세기에 달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유럽사회(société européenne)라는 것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여기서 하아스(Haas)나 린드버그(Lindberg)류의 신기능주의 지역통합이론의 틀을 사용하면서 도이치(Deutsch)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가미하여, 공동체 기구와 정책의 생성이 사회경제적 행위자들의 동원과 조직화를 초래하고,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교류와 협력을 유지, 발전시키는 구조와 연결망이 생성되는 과정을 묘사한다. 그 결과로 공동체 차원의 초국가적 이익집단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며, 이것은 다시 정당과 여론의 차원에서 통합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이같은 통합의 진행과정을 시잔스키는 연쇄효과(Effet d'engrenage)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한다. 환언하자면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통합을 위한 조약과 기구, 조치가 특정한 기능적 부문에서 형성되면서, 비공식적이고 경제사회적인 통합과정을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통합은, 다시 보다 근본적인 정치적 제도적 통합을 초래하게 되며, 우리는 지금 바로 이 과정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서론에서 자신이 이스턴(Easton)의 체계주의적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제3부는 “유럽 연방주의”에 관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는 여기서 유럽사회가 선택해야만 하고,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연방주의의 필연성을 주장한다. 현재의 모든 사회는 세계화(Globalisation)와 차별화(Différenciation)라고 하는 이중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두가지 경향간에 존재하는 긴장과 괴리를 해결하는 이상적인 방법이 바로 연방주의라는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다른 민족국가와의 대립과 경쟁, 충돌을 조장하고, 내부적으로 지방적, 종교적, 민족적 자율성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단일국가는 이제 새로운 세계에서 부작용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한다. 시잔스키가 제안하는 연방주의는 모네의 경제적, 기능적 연방주의와 드루주몽(de Rougemont)의 정치문화적, 제도적 연방주의를 적절히 조화시키려고 하는 제안이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체결과 유럽연합의 출범이 가지는 의미를 유럽연방의 초석으로 해석한다. 물론 걸프전과

유고의 내전에서 보았듯이 유럽 정치문화통합의 길은 아직 멀었다. 이 두가지 국제적 위기는 유럽통합의 취약성을 노출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통합의 심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제 유럽연합이 유럽연방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계획한 단일화폐를 위한 경제통화연합과 공동의교안보정책의 성공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여러모로 획기적이고 훌륭한 이 연구의 취약한 점은 그것이 너무나 제도적인 분석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 기구가 운영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데에도 초국가 관료집단과 회원국 정치관료집단의 자율적 이익과 이념에 대한 정치사회적 접근보다는 형식적(formal)이고 제도적인 측면이 주로 강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유럽의 경제사회 행위자들이 초국가적으로 동원되고 조직되는 데 있어서도 기구와 형식적 규칙만을 중점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그 설명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약점들은 한 명의 학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연구방법과 성향의 당연한 결과라고 치더라도, 유럽의 연방주의적 제도가 어떠한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하고 광범위한 분석이 갈구된다. 특히 19세기 사상가 중에서 엘리트 주도의 산업주의(industrialisme)와 생산주의(productivisme)를 강력히 주장한 생시몽(Saint-Simon)이나 개인과 소규모 공동체의 자율성을 강조한 프루동(Proudhon)의 무정부주의적 사회주의(Socialisme anarchiste)에 대한 분석과 유럽통합을 연관지어 검토하지 않았던 것이 심히 아쉽다. 이제 “유럽의 연방주의적 미래”의 저자 시잔스키와 평자가 공유하고 있는 당위론적, 예언적 의미의 인용문으로 이 글을 마치고 한다.

“20세기는 연방주의의 시대를 열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인류는 천년간의 고통을 다시 받게 될 것이다.” P-J. Proudhon, *Du principe fédératif*, Paris : Editions Bossard, 1921, pp155-156

조홍석, 서강대 강사

Tel : 980-7249(H)